

과제구분	기관고유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지역농업 발전전략 연구		농업경영	'21 ~ '28	작물연구과	이원석
포천시 지역육성작목 콩 발전 전략 연구		농업경영	'24 ~ '25	작물연구과	이원석
색인용어	지역농업, 발전전략, 지역육성작목, 포천시, 콩				

ABSTRACT

Pocheon City's soybean cultivation area was 238.4 ha in 2023, a 7.8% decrease from 2019, and production declined by 4.6% to 445.2 tons. Its specialization index (0.7) is lower than that of major soybean-producing regions, indicating that Pocheon is less specialized and better suited to a niche strategy linking local demand with regional distribution.

Rather than focusing on production volume, strategies centered on quality improvement, processing use, school meal supply, and regional branding ar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To stabilize the soybean industry, variety diversific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are required. In particular, local varieties such as Gangpung soybean should be promoted through integrated strategies connecting production, procurement, processing, and branding.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strategies to develop soybeans as a regional strategic crop in Pocheon and to enhance farm incom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oybean product development and branding.

Key words: Regional Agriculture, Soybean Industry, Pocheon City, Development Strategy

1. 연구목표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023년 238.4ha로 2019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같은 기간 4.6% 감소한 445.2톤으로 나타났다. 주요 콩 주산지의 평균 특화계수가 약 2.9인 반면 포천시는 0.7 수준으로 나타나 연천군, 괴산군, 김제시 등에 비해 특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주산지 간 10a당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포천시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 중심 경쟁보다는 품질, 가공 활용, 학교급식 등 용도 중심 전략과 지역 브랜드 차별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천시 콩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량성, 가공 적성, 내재해성을 고려한 품종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품종 중심의 수매·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천시 콩은 농협 수매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일부 물량은 가공업체 납품, 학교급식 공급,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어 신규 판로 확대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강풍콩 등 지역 품종은 인지도와 수매체계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 확대뿐 아니라 수매·가공·판매·브랜드를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부(2025)의 벼 대체 논콩 재배 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에 대비하여 두류 비축수매, 계약재배, 공공급식 연계, 가공업체 판로 확대, 신규 가공품 개발 등 유통 및 가격 안정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천시 콩을 지역육성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산·유통·가공·브랜드 분야별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콩 가공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경기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역육성작목 발전 전략 개발 연구과제」 공모에서 선정되어 2024~2025년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포천시 콩 산업 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대상 지역은 포천시의 주요 콩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 대상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 조사와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 통계 분석,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국내 콩 산업 동향과 콩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근거로 콩 생산 및 소비 구조와 시장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포천시 콩 생산 농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회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콩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콩 산업 여건 변화와 콩 식품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포천시 콩 생산, 품질, 수매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하여 지역 콩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천콩의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 생산 안정화 전략과 신제품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포천콩 브랜드 가치 향상과 상품화 전략을 분석하고 비교 지역 사례를 통해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포천시농업재단의 공공급식 연계와 지역 식품가공업체 육성을 중심으로 콩 산업 발전 및 융복합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국내 콩 생산동향

1) 콩 생산동향

농작물생산조사(국가데이터처)에 의한 국내 콩 생산동향은 2005년 재배면적 105천 ha, 생산량은 183천 톤으로 가장 높았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75천 톤의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생산량은 2024년 155천 톤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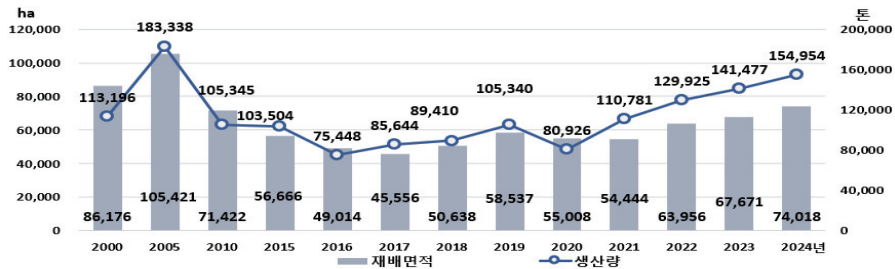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농작물 생산조사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20천 ha 면적에서 51천 톤을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북, 충남, 전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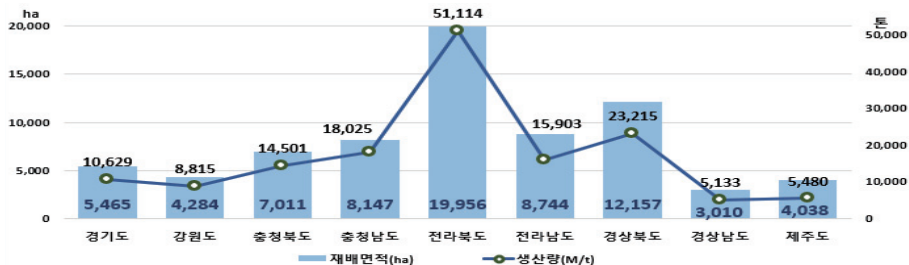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교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농작물 생산조사



특히 전남북지역의 콩 재배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북은 전년 대비 23.2%, 평년 대비 72.9% 증가, 전남은 전년 대비 61.5%, 평년 대비 114.9% 증가하였다(그림4). 그러나 경기도 콩 재배는 전년 대비 20.3%, 평년 대비 24.7%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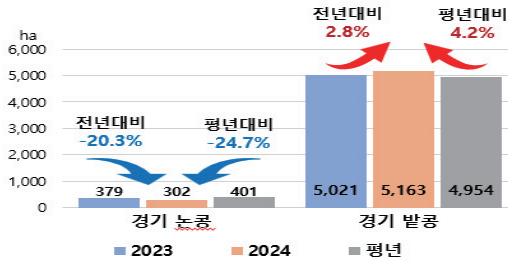


그림 3. 경기도 콩 재배면적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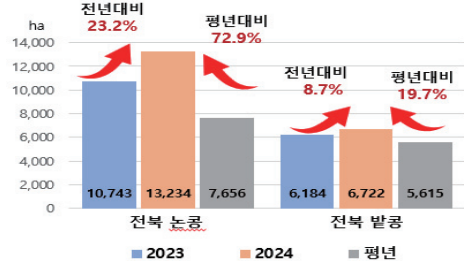


그림 4. 전북지역 콩 재배면적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2) 포천군 콩 생산 동향

2023년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38.4ha로 2019년 대비 7.8%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445.2톤으로 같은 기간 4.6%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 기반의 정체와 생산성 변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안정화 전략이 요구된다(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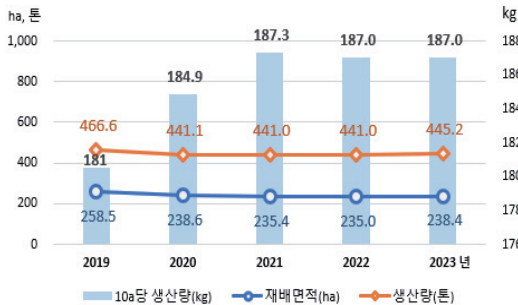


그림 5. 포천시 콩 생산 변화 추이
출처: 국가데이터처(KOSIS), '23-'24 시군 자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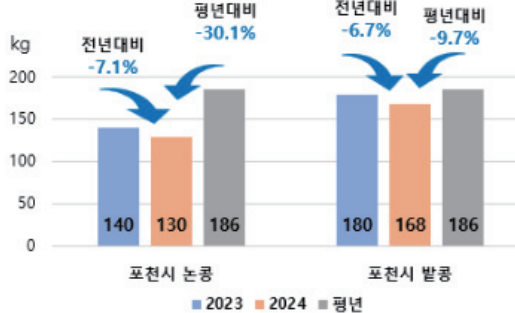


그림 6. 포천시 10a당 콩 생산성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주요 콩 주산지역의 평균 특화계수는 2.9 수준이며, 연천군(4.4), 괴산군(3.9), 김제시(3.8)에 비해 포천시(2021년 0.7)는 특화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포천시가 ‘전국 콩 주산지형 구조’ 라기보다, 지역 내 수요·유통과 결합한 틈새 전략이 적합한 지역임을 의미한다(그림 7). 2021년 기준 주산지 간 10a당 생산량을 비교하면 김제시, 부안군, 괴산군이 상대적으로 높고, 포천시는 중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포천은 생산량 경쟁보다 품질·용도(가공·급식)·브랜드와 같은 차별화 요인이 중요하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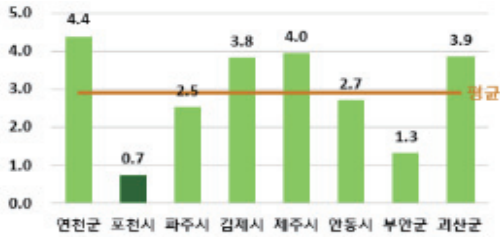


그림 7. 콩 주산지별 특화계수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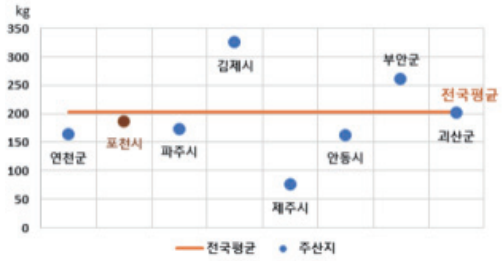


그림 8. 콩 주산지의 10a당 생산량 비교
(2021년 기준)

나.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 관련 이슈 분석

1) 재배 품종 집중도(HHI) 및 분산도

김상호(2018)는 농업생산의 다각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사용하였다. HHI값이 클수록 한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응용하여 포천시 콩 재배에서 특정 품종의 집중도를 산출하였다.

포천시 자료를 기반으로 품종 집중도(HHI)와 수확량 증감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0.977**), 논콩(-0.935*), 밭콩(-0.909*)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 이는 특정 품종에 재배가 집중될수록 최근 수확량 증감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종 다양화는 기상 변동에 따른 생산 위험을 완충하고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9, 그림 10).

표 1. 품종 집중도와 수확량 증감률간 상관계수

구분	전체	논콩	밭콩
상관계수	-0.977**	-0.935*	-0.909*
p-value	0.023	0.065	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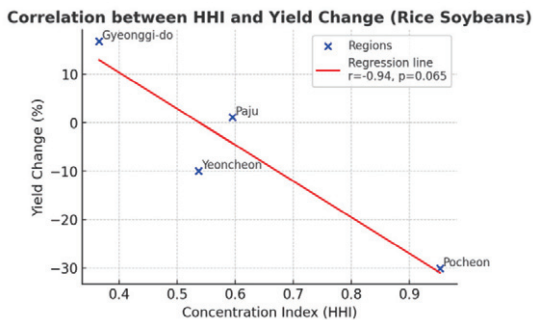


그림 9. 수확량 증감률간의 상관관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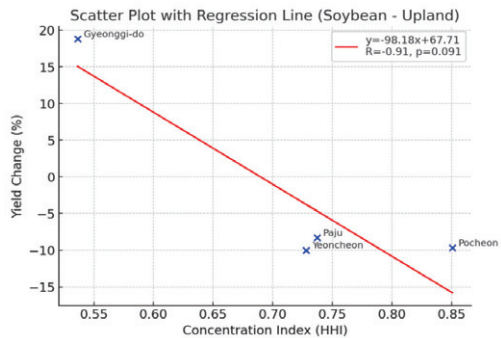


그림 10. 상관관계(밭콩)



이러한 결과는 품종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후변화나 재해 발생 시 생산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포천시는 높은 품종 집중도와 낮은 수확량 증감률이 동시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생산 취약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포천시 콩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량성, 가공 적성, 내재해성을 고려한 품종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일 품종 중심의 수매·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유통 관련 이슈

포천시 콩은 영중농협, 가산농협, 소흘농협, 일동농협, 포천농협 등을 통해 수매되며, 농협별 수매가격은 4,700~5,000원/kg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농가의 출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량 집적과 품질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표 2).

수매된 원료콩은 관내외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물량은 직거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주)성호 납품 11,160kg, 학교급식 2.4톤, 관외 가공업체 납품 37톤 등이 직거래로 이루어져 농협 중심 구조 속에서도 신규 판로 확대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농협 수매는 대원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풍콩은 인지도와 수매체계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강풍콩을 지역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 확대와 함께 수매·가공·판매·브랜드를 연계한 통합적인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벼 대체 논콩 재배 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에 대비하여 두류 비축수매 등 가격 안정 장치와 공공급식·가공업체 연계 계약재배, 가공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2. '24년 포천콩의 수매현황 및 주요 판로

구분	수매량 (톤)	수매가격 (원/kg)	주요 판매처 및	판매수량 (톤)
영중농협	205	4,800원	- 강릉초당순두부, 알찬식품, 가래울영농조합법인	117
			- 식당, 도매업체 등 기타	88
일동농협	12	4,800원	- 영중농협, 도매업체	12
소흘농협	46	4,800원	- 영중농협	46
포천농협	77	5,000원	- 가공업체, 도매상, 식당 등	77
가산농협	4	4,700원	- 가공업체, 식당 등	4
합계	344			344

출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다. 포천시 콩 육성 전략 및 분야별 발전 과제

1) 포천시 콩 발전 방향 분석

표 3과 같이 실시하여 SWOT 분석을 통해 포천시 콩 산업의 내부 역량(강점·약점)과 외부 환경(기회·위협)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SO·WO·ST·WT 전략을 도출하였다(표 4).

포천 콩 산업의 SO 전략(강점×기회)은 지역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프리미엄 강풍콩 제품(두부·콩물·콩즙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친환경·무농약 농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 인증 확대 및 학교·공공급식 납품을 추진, 콩연구회 중심 브랜드화로 나타났다.

WO 전략(약점×기회)은 포천콩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건강·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를 지역 브랜드 수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강풍콩 수매체계도입 시범사업으로 단일품종 중심 수매 구조를 완화하고, 품종 전환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두유·콩음료 등 고부가 제품은 관내 업체와 외부 전문기업의 공동기획으로 추진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ST 전략(강점×위협)은 가공업체 중심의 원료곡 수급 체계를 강화해 수입콩 확대·가격 불안정에 대응, 친환경 강풍콩 기반의 고정 수요처(급식·프랜차이즈 등)를 확보해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판매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 모델을 강풍콩 외 타 품종으로 확산해 위험 분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WT 전략(약점×위협)은 다품종 시험재배와 지역 수요 기반 수매체계를 마련해 특정 품종 의존도를 낮추고, 가공업체 판로개척과 공동 브랜드 개발로 유통 취약을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함. 농협 중심 유통은 유지하되, 직거래·공공급식·로컬채널을 병행 구축해 채널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표 3. 포천시 콩 산업 SWOT 매트릭스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콩 식품(두부·콩물) 제조업체 활동 콩연구회 중심 강풍콩 재배 생산 및 유통 기후위기 대비 병해충에 강한 강풍콩 생산 농업기술센터의 콩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 친환경 무농약 콩 재배 농업인 활동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천콩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함 포천시는 콩 원료곡 생산 공급지역의 한계점 소비자 접근성이 약하고 인구유입이 높지 않음 농협과 대형 식품업체에 콩 거래 협상력이 집중 대원콩 단일 품종 수매 및 판매로 변화에 제약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콩이 선호됨 콩 식품류 생애주기별 차별화 상품 출시 콩즙, 두유 등 식물성 밀크 소비 증가 기후변화로 경기북부는 고품질 콩 생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작물직불제로 국내 콩 생산 증가 추세에 새로운 수요 창출 여부에 따라 가격하락 우려 고품질 저가의 해외 수입콩 유입 증가 식품업체의 두부·두유용 수입콩 사용 선호도 증가 국내 소비자 가정내 콩 식품류 구매 감소 추세

표 4. 포천시 콩 산업 SWOT 매트릭스 전략 도출

구분	핵심적인 대안
S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콩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 연계 → 프리미엄 강풍콩 제품 개발 친환경·무농약 재배 농가 조직화 → 친환경 인증 확대 및 학교급식·공공 급식 납품 연계 콩연구회 중심 강풍콩 브랜드화 및 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 장터 연계 확대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콩 브랜드 홍보 강화 → 건강 트렌드·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대응 강풍콩 수매체계도입 시범사업 → 특정 품종 중심 수매 문제 보완 두유·콩음료 등 고부가 식품 개발 → 관내 가공업체 및 외부 전문기업과 공동 기획
S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업체 중심 자체 원료곡 수급 체계 강화 → 수입콩 유입 및 가격 불안정 대응 친환경 강풍콩 기반 고정 수요처 확보 →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안정적 소비처 확보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 모델을 강풍콩 외 타 품종으로 확대 추진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품종 시험재배 및 지역 수요 기반 수매 체계 마련 → 특정 품종 의존도 완화 가공업체 판로개척 및 공동 브랜드 개발 → 유통 취약 보완 및 부가가치 확대 농협 중심 유통구조 개선 및 직거래 채널 병행 구축

2) 포천시 콩 산업 종합 진단 및 발전의 3대 전략축

포천시 콩 산업은 일정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상 변동성 확대에 따라 생산 안정성과 품질 고도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통 구조는 농협 수매 중심의 출하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대형 수요처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내 가공 산업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원물 중심 출하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가가치가 지역 외부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브랜드 경쟁력 부족으로 가격 협상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 구조는 생산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공·외식·관광·공공급식과의 연계는 제한적이다. 반면 건강 중심 소비 확대와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에 대응한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포천시 콩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고도화 전략으로 기후 변화 대응 재배기술 체계를 정립하고 논콩·밭콩 적지 재배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와 단수 안정화 기술 보급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화 품종 육성을 통해 고품질 단백질 원료 산지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통 및 가공 다변화 전략이다. 농협 수매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직거래, 기업 연계, 공공급식 등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포천산 콩 공동 브랜드 개발과 품질 인증 체계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두부·콩죽 등 가공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 생태계 확장 전략이다. 콩 생산을 중심으로 가공·외식·관광을 연계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산·관·농협·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콩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포천콩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

2023년 포천시 콩 생산량은 약 445톤으로, 이 중 농협 수매 344톤(77.3%), 농가 직거래 75톤(16.9%), 자가 소비 26톤(5.8%)으로 유통되고 있다. 포천시 5개 농협에서 수매된 원료콩은 20여 개 이상의 식품가공업체, 도매업체,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거래처 유지를 위해 포천콩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포천콩의 주요 이용 용도는 두부가 396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콩죽(콩물) 21톤, 장류 등 기타 용도가 2.1톤으로 나타나 두부 중심의 소비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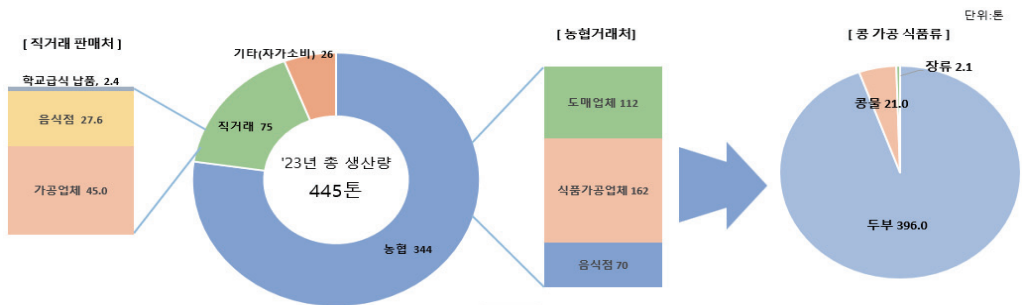


그림 11. 포천콩 생산과 유통 경로별 판매량



포천콩 식품 산업 협력 전략으로 포천시농업재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콩 식품 소비 촉진과의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표 5). 따라서 포천시농업재단이 관내 콩 가공업체와 학교·공공기관 급식시설을 연계하여 콩 식품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급식 기반의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5. 포천시의 공공급식 관련 조례

조례명	담당부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조례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포천시 5개 농협 중 영중농협이 가장 많은 콩을 수매하고 있으며 일부 농협의 원료 곡도 함께 유통하고 있다. 따라서 영중농협을 중심으로 콩 수매와 유통 기능을 집중하여 안정적인 거래처를 유지·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s-Is (현재)	To-Be (미래)
<p>가산농협, 1%</p> <p>포천농협, 22%</p> <p>소홀농협, 13%</p> <p>일동농협, 3%</p> <p>영중농협, 60%</p>	<p>기타농협 20%</p> <p>영중농협 80%</p> <p>알찬식품</p> <p>초당순두부</p> <p>가래울영농조합법인</p>
<p>< 포천시 5개 농협의 콩 수매량 비율 분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천시 5개 농협 344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중농협 205+58톤(일동 12, 소홀 46톤) 포천농협 77톤, 가산농협 4톤 주요 거래처: 강릉초당순두부 60톤, 알찬식품 40톤, 농부농산 20톤 등 21개소 이상 물량 부족(* 24)으로 강릉초당 물량감소 포천시 보조금 지원 없음 	<p>< 영중농협의 주요 거래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중농협이 콩 수매 규모 확대: 80% 이상 주요 거래처: 강릉초당순두부 100톤, 가래울영농조합 60톤 등 중대형 확대 강원도 강릉초당순두부와 거래 규모 확대 포천콩 소비촉진 보조금 지원

지역 식품가공업체 육성과 콩 식품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콩 소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 3개 시군 중 포천시는 농협 수매 비중이 77.3%로 가장 높아 원료곡 중심 유통 구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반면 파주시는 직거래 비율이 54.1%로 두부·장류 제조업체와 음식점 등 지역 내 소비 기반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포천시도 가공업체의 콩 식품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고 관광지역 음식점과 연계한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포천시농업재단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콩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콩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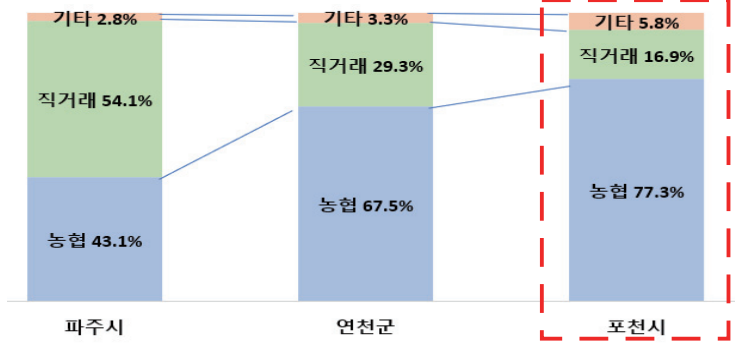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북부 콩 유통 경로별 판매량 비교

지역 식품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객 홍보를 위해 포천시 내 콩 식품가공업체(5개소), 음식점(22개소), 카페(1개소) 등을 연계한 ‘콩식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그림 13). 또한 한탄강 들레길, 산정호수, 포천허브랜드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일부 구간을 ‘두부거리’로 조성하고 이를 ‘콩식품 네트워크’와 함께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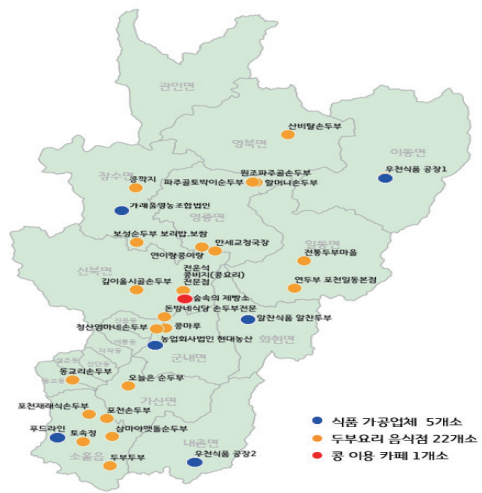


그림 13. 포천시 콩 이용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포천시 콩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식품가공업체인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콩 식품류 제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콩 소비와 연계하는 산업 내재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농협과 포천시콩연구회로부터 원료콩을 공급받아 ‘마시는 콩즙’ 제품을 상품화하고 생산·유통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그림 14. 가래울영농조합법인 콩물 제조



그림 15. 콩물 디자인 및 제품정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의 콩즙 제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포천산 국산콩 100% 사용’과 ‘첨가물 무첨가’가 주요 장점으로 인식되었으며 선택 이유에서도 ‘첨가물이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소비자의 지불 의사 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5,711원으로 현재 시판 가격(900ml 기준 5,400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표 6).

표 6.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래울 콩물	1,000원	15,000원	5,711.46	3,016.197

한편 콩물 제품은 성장기와 고령층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유의 비릿한 향으로 인해 소비층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소한 맛 개선과 휴대가 편리한 소용량 패키지 개발 등을 통해 소비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천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의 두부 및 콩즙 등 콩 식품 제조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콩 가공산업화 및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 관련 공모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적 요

가. 국내 및 경기도 콩 생산 동향

국내 콩 생산은 2005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 약 15만 5천 톤 수준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쌀 생산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으로 콩 재배 확대 요인이 형성되고 있다.

2024년 경기도 콩 재배면적은 5,465ha, 생산량은 10,629톤이며 파주·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시군이 재배면적의 51.8%, 생산량의 45.6%를 차지하여 도내 주요 콩 생산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에는 여름철 가뭄과 고온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수량 감소가 발생하였다.

나. 콩 식품 소비 동향

신선 콩류 가구당 구입액은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22년 6,253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콩 가공식품 소비는 두부와 두유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일시적 증가 이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콩 식품 구매 확대 이유로는 건강 유지 및 근력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콩즙 제품은 약 48%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향후 콩 산업은 건강성과 맛을 중심으로 한 제품 전략과 중장년층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다. 포천시 콩 산업 현황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023년 238.4ha로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같은 기간 감소하였다. 현재 유통은 농협 수매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요 품종은 대원콩이다. 강풍콩은 수매 체계와 인지도 부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재배 확대와 함께 가공·브랜드 전략을 연계한 산업화가 필요하다.

또한 논콩 재배 확대에 따른 생산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급식 연계 계약재배, 가공업체 판로 확대, 가격 안정 정책 등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라. 포천시 콩 산업 SWOT 전략

SO 전략은 지역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두부·콩즙 등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재배 확대와 공공급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다.

WO 전략은 포천콩 브랜드 홍보 강화와 강풍콩 수매체계 도입을 통해 품종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ST 전략은 지역 가공업체 중심 원료곡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을 통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WT 전략은 다품종 시험재배와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특정 품종 의존도를 완화하고 직거래·공공급식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 포천시 콩 산업 발전 방향

포천시 콩 산업은 품종 다양화와 친환경 재배 확대를 통해 공공급식 및 직거래 시장으로 연계하고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강풍콩 중심 품종 육성과 재배 안정화 기술 보급이 요구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농협 수매 구조를 기반으로 직거래·공공급식 등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가공 단계에서는 두부·콩즙 등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 가공업체와 음식점, 관광 자원을 연계한 ‘포천 콩식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콩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인용문헌

- 경기도농업기술원. 2015. ‘두류 소비트렌드 변화와 대응전략’. 경기농업 FOCUS-04.
국가데이터처(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 김상호. 2018. ‘농가의 농업생산 다각화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2025.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조회서비스(<https://uni.agrix.go.kr>)
- 농촌진흥청. 2017. ‘콩 경영관리’. 농업경영자료 08호.
- 농촌진흥청. 2024.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콩 생산과 콩 식품류 트렌드’ P77-P104.
- 포천시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연보
- 당진시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연보
- 포천시, 김제시, 괴산군, 파주시. 각 년도. 통계연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mis.or.kr), 2022 품목별 유통실태(식량작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물성 대체육 시장동향 및 전망’. 세계농업 3월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2025. ‘콩’. 농업관측 4월호, 11월호.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생산과 두부제조 참여 사업(정책제안, 2024년)
- 경기도 육성 콩 이용 ‘마시는 콩즙’ 상품화 연계 사업(정책제안, 2024년)
-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포천시 콩 발전 전략(자료발간, 2024년)
- 포천콩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정책제안, 2025년)

7.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24-'25
포천시	책임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이원석	세부과제총괄	○
지역육성작목 콩 발전 전략	공동연구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관	이원석	과제수행 총괄	○
	〃	〃	농업연구사	이정명	자료조사	○
	〃	〃	농업연구사	김연진	자료조사	○
	〃	〃	농업연구관	이수연	자료검토	○
	〃	〃	농업연구관	이영순	연구방향제시	○
	〃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김지은	연구방향협의	○
	〃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최광용	공동조사연구	○